

SK케미칼, 바이오디젤 수출 본격화

Trafigura와 공급계약 ... 2010년 4800만달러 수출 미주·아시아 판매

SK케미칼의 바이오디젤(Bio-Diesel) 수출이 본격화하고 있다.

SK케미칼은 싱가포르의 Trafigura와 바이오디젤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21일 발표했다.

단발성이 아닌 1년 단위의 안정적인 공급계약으로 2010년 4800만달러의 바이오디젤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Trafigura에 공급하는 SK케미칼의 바이오디젤은 미주 및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될 예정이다.

미주 지역은 세계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품질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졌다.

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“SK케미칼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개발 투자를 늘리고 EU(유럽연합) 등지에 진출을 확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1>